

2019 년 12 월 8 일 “복음 -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마 4:17)

<도입>

예수님은 이 땅의 한정된 영역, 한정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피조계 전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섬김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새창조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는 먼저 신학이 독립적으로만 서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영역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세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철학, 법, 경제, 사회, 문화, 인류학, 문학, 심리학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복음은 세상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마 4:17)

마 12:28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천국)는 죽은 후에 영혼만 입성하는 곳이 아니며,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십니다. (가깝다 =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다)

‘나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3 요소: 장소, 국민, 주권(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들이 존재하며, 장소는 영적 영역, “그리스도 안” “주 예수 안”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입니다.

역사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입니다. 백성은 아담과 이브, 장소는 네 개의 강의 중심으로 한 지역, 주권은 하나님의 법(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입니다.

또한 구약에 왕국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대인은 왕국을 지리적 영역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구약에서 왕국은 다스림(말쿠트=주권)을 말합니다.

왕상 2:12 (솔로몬의) ‘왕국이(-> 다스림) 심히 견고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도 하늘의 왕으로서 통치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시 145: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통치 방식(주로 법)을 이해 못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잘 살려면 이 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따라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이 땅에 새 다스림이 열렸다는 뜻이며, 예전(세상) 식대로는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 가운데 받으시고 당신의 삶에서 실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면 확실합니다.

‘왜 그리 남을 돕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당신은 어찌 물질에 그리 초연한가?’ ‘영적인 부요함이 중요하니까!’

[2]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삶과 죽음을 통해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생명 받는 길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절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복하시기에 매우 능동적이셨습니다.

마 11:12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담과 하와 때에 사탄에게 넘겨진 세상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며 침노하였습니다(Divine Invasion). 이제 그 나라(다스림)를 받으려면 힘써야 합니다(12 절 b). 성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힘을 써야 할까요? 각자가 부름 받은 다양한 영역에서입니다. 역사, 법학, 철학, 예술, 의료분야, 자연과학, 환경, 사회, 봉사, 정치, 경제, 사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구하고 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임하면 많은 비인격적, 비관계적 문제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뜻하신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에게 능동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는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일도 내게 새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맺음>

하나님의 나라(통치)가 임했다는 말은 세상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도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로서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받고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도 능동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취하는 성도 또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나는 평상시에 무엇에 대하여 능동적입니까?